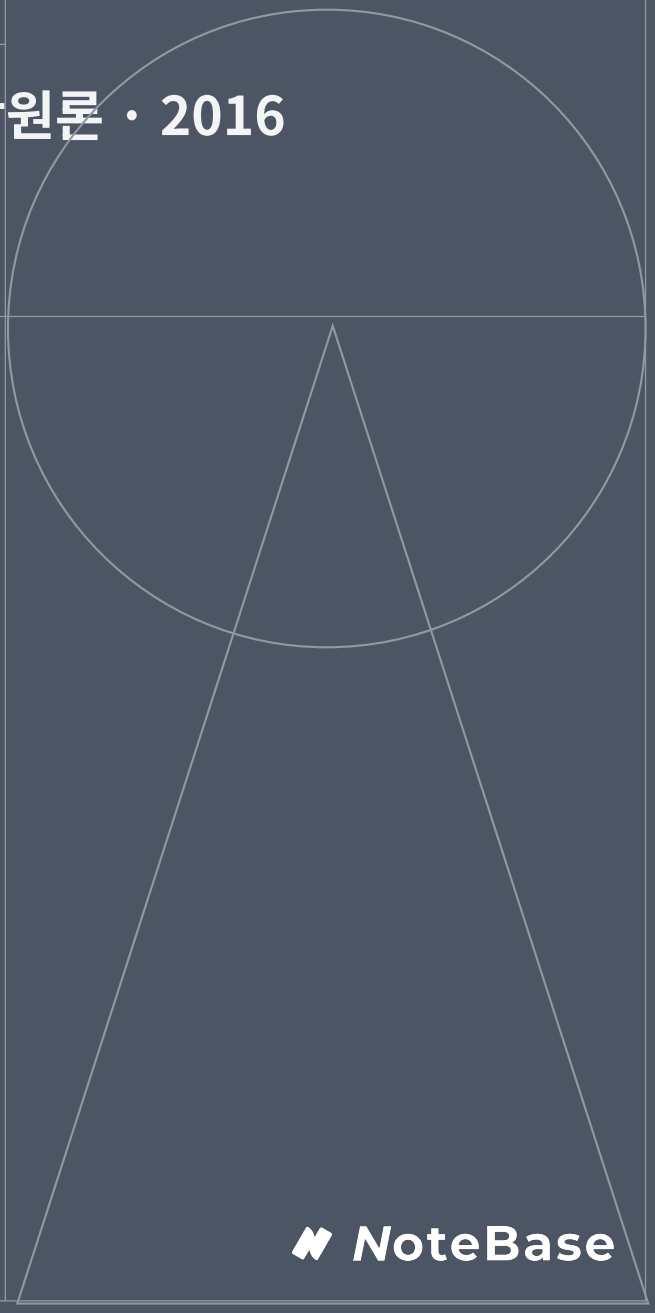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6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6

문 1. 어떤 판매자가 경매(auction)를 통해 물건 100개를 판매하려고 한다. 경매 방식은 '구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제시하고, 판매자는 입찰 가격을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참가자들에게 물건 100개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때 100번째 물건이 판매되는 참가자의 입찰 가격이 유일한 낙찰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되고, 각각의 입찰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 물량을 낙찰 가격에 구매한다. 모든 참가자는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알고 있다. 다음 표는 판매자가 참가자들로부터 동시에 입찰을 받아 정리한 결과이다. 입찰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가자	입찰 가격(원)	입찰 물량(개)
A	11,200	5
B	11,000	10
C	10,500	20
D	10,300	20
E	9,900	40
F	9,800	10
G	9,600	30

① 낙찰 가격은 9,900원이다.

② 구매자가 진정한 가격을 입찰한다(truth-revealing)는 전제하에 구매자 잉여는 47,000원이다.

③ 참가자 G는 낙찰되어 제시한 30개 물량 중 10개를 배정받아 스스로 제시한 개당 9,600원에 구입한다.

④ 참가자 7명 중 2명은 하나의 물량도 낙찰받지 못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복수단위 균일가격 경매에서 누적 낙찰수량으로 낙찰가격과 각 참가자의 배정수량을 구하고, 진정가격 입찰을 가정한 구매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하며, 100번째 물건이 팔리는 참가자의 입찰가격이 모든 낙찰자의 낙찰가격이 된다.
A~E의 누적 수량은 5+10+20+20+40=95개이다. 따라서 남은 5개는 F에게 배정되고, F의 입찰가격 9,800원이 낙찰가격이 된다. G에게는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계산 과정

가격순 배정은 A 5개, B 10개, C 20개, D 20개, E 40개, F 5개이다.
낙찰가격은 100번째 물건을 받는 F의 입찰가격인 9,800원이다.
진정가격 입찰 가정에서 구매자잉여는 A 7,000원, B 12,000원, C 14,000원, D 10,000원, E 4,000원, F 0원이다. 합계는 47,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낙찰가격은 9,900원이 아니라 100번째 물건을 배정받는 F의 입찰가격인 9,800원이다. 틀린 표현 '9,900원' → '9,800원'이다.
② O. 진정가격을 각자의 입찰가격으로 보면, 낙찰자별 구매자잉여의 합은 7,000+12,000+14,000+10,000+4,000+0=47,000원이다.
③ X. G는 낙찰되지 않아 30개 중 10개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한 낙찰자는 자신의 입찰가격이 아니라 균일 낙찰가격 9,800원에 구매한다. 틀린 표현 'G는 10개를 배정받아 개당 9,600원에 구입한다' → 'G는 배정받지 못하며, 낙찰자는 개당 9,800원에 구입한다'이다.
④ X. 물량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 참가자는 G 1명뿐이다. F는 신청량 10개 전부는 아니지만 5개를 배정받는다. 틀린 표현 '2명은 하나의 물량도 낙찰받지 못한다' → '1명만 물량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9,900원은 E의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이 경매에서는 누적수량이 처음 100개에 도달하는 F의 가격을 찾아야 한다. ③은 개별 입찰가격으로 결제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모든 낙찰자는 동일한 낙찰가격을 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을 높은 순서로 놓고 누적수량을 더해 목표 수량에 처음 도달하는 참가자를 찾는다. 그 참가자의 가격이 균일 낙찰가격이며, 마지막 참가자는 남은 수량만 부분 배정받을 수 있다. 구매자잉여는 각 낙찰자의 진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에 배정수량을 곱해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일가격 경매: 목표 수량의 마지막 단위 가격이 모두의 결제가격이다.

NoteBase

문 2. 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④ 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평가하고, 편익은 순사회적 편익만 계산하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적 비용은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고, 사회적 기회비용은 그 자원을 이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포기한 최선의 대안가치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보므로 임금 등 투입요소의 비용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업이나 인구가 옮겨 오는 효과는 새로 생긴 순편익이 아니라 기존 활동의 이전일 수 있으므로 중복 계상을 피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새로 고용한 인력의 노동은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자원이므로 그 대가는 편익이 아니라 비용 측에 반영한다. 다만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임금의 실제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평가한다.

② O.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과 인구가 도로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서 보면 활동의 재배치에 그칠 수 있다. 이를 도로 건설의 별도 편익으로 더하면 기존 지역의 감소분과 중복 계상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O. 장래 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장기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지출된 회계적 비용보다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임금과 ④의 비용을 모두 실제 지급액으로만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①은 노동 투입이 비용이라는 분류를 말하고, ④는 그 비용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 기준은 회계지출액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먼저 사회 전체의 순변화를 확인한다. 단순한 이전·재배치는 편익에서 빼고, 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대안적 사용에서 포기한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래 편익은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가치가 커진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비용 = 회계지출액이 아니라 기회비용, 이전효과 = 순편익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어떤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 = AK^{0.3}L^{0.5}H^{0.2}$이다. 여기서 A, K, L, H는 각각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자본 증가율이 3%, 노동 증가율이 4%, 인적자본 증가율이 5%인 경우 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① 3.2%

② 4.9%

③ 5.5%

④ 6.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총생산함수에서 총요소생산성과 각 생산요소의 성장률을 이용하여 산출량 성장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생산함수는 $Y = AK^{0.3}L^{0.5}H^{0.2}$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 자본 증가율은 3%, 노동 증가율은 4%, 인적자본 증가율은 5%이다.

사용할 공식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Y = AK^aL^bH^c$의 성장률은 $g_Y = g_A + ag_K + bg_L + cg_H$이다. 각 지수는 해당 생산요소 성장률에 곱하는 생산탄력성이므로, 요소별 증가율을 단순 합계하지 않고 지수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

$g_Y = 1\% + 0.3 \times 3\% + 0.5 \times 4\% + 0.2 \times 5\%$

$= 1\% + 0.9\% + 2.0\% + 1.0\% = 4.9\%$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4.9%이므로 3.2%가 아니다. 틀린 표현 '3.2%' → 올바르게는 '4.9%'이다. 3.2%는 총요소생산성과 각 요소의 가중 기여분을 모두 정확히 합산한 값이 아니다.

② O: 총요소생산성 기여분 1%, 자본 기여분 0.9%, 노동 기여분 2.0%, 인적자본 기여분 1.0%를 합하면 4.9%이다.

③ X: 계산 결과는 4.9%이므로 5.5%가 아니다. 틀린 표현 '5.5%' → 올바르게는 '4.9%'이다. 요소 성장률을 생산함수의 지수로 가중하지 않으면 산출량 성장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④ X: 계산 결과는 4.9%이므로 6.8%이 아니다. 틀린 표현 '6.8%' → 올바르게는 '4.9%'이다. 각 요소의 증가율을 그대로 더하거나 지수와 맞지 않게 적용한 값은 성장회계식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본·노동·인적자본의 증가율 3%, 4%, 5%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함정이다. 생산함수의 지수 0.3, 0.5, 0.2를 각각의 성장률에 곱한 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콥더글러스 생산함수가 제시되면 먼저 각 지수를 확인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지수×각 요소 증가율'을 모두 더해 산출량 성장률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성장률 =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 요소별 성장률의 지수 가중합이다.

NoteBase

문 4. 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은 $MC = 2Q$, 한계수입은 $MR = 24$라고 하자. 재화 X의 생산은 제3자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형태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데, 재화 X가 Q만큼 생산될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한계피해액(Marginal External Cost)은 $MEC = Q$이다. 정부는 X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생산자가 현재 생산량으로부터 한 단위 감축할 때마다 정액의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산량 감축 1단위 당 보조금은?

① 2

② 4

③ 6

④ 8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시장생산량과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비교하고, 생산 감축 1단위당 필요한 보조금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한계비용은 $MC = 2Q$, 한계수입은 $MR = 24$, 한계외부비용은 $MEC = Q$이다.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사회적으로는 외부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한계비용은 $MSC = MC + MEC$이다. 따라서 $MSC = 2Q + Q = 3Q$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MR = MSC$에서 결정된다. 생산 감축 보조금은 생산자가 감축할 때 포기하는 한계이윤을 보전해야 하므로, 목표 생산량에서 $MR - MC$로 구한다.

계산 과정

1. 시장생산량은 $MR = MC$이므로 $24 = 2Q$, 따라서 $Q = 12$이다.
2.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MR = MSC$이므로 $24 = 3Q$, 따라서 $Q = 8$이다. 즉 생산량을 12에서 8로 4단위 감축해야 한다.
3. 생산량 $Q = 8$에서 생산자가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얻는 한계이윤은 $MR - MC = 24 - 2 \times 8 = 8$이다. 따라서 1단위 감축을 유도하는 보조금은 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2는 목표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이나 한계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 → 감축 1단위당 보조금은 2가 아니라 8이다.
② X. 4는 시장생산량 12와 사회적 최적생산량 8의 차이인 총 감축량이다. 틀린 표현 → 4는 단위당 보조금이 아니라 감축해야 할 생산량이다.
③ X. 6은 목표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 $MEC = Q = 8$ 및 생산자의 한계이윤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 감축 1단위당 보조금은 6이 아니라 8이다.
④ O. 목표 생산량 8에서 생산자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8만큼의 이윤을 얻는다. 이 이윤을 보전해야 생산 감축이 유도되므로 단위당 보조금은 8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4를 단위당 보조금으로 착각하기 쉽다. 4는 시장균형 생산량 12와 사회적 최적생산량 8의 차이일 뿐이다. 보조금은 목표 생산량에서 생산자가 포기하는 한계이윤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불경제 문제에서는 먼저 $MR = MC$로 시장생산량을 구하고, $MR = MC + MEC$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한다. 감축 보조금은 목표 생산량에서 $MR - MC$를 계산해 정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비용이 있으면 $MSC = MC + MEC$이며, 감축 보조금은 목표 생산량에서의 포기 한계이윤이다.

NoteBase

문 5. 어느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피트니스클럽 A가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시행하려고 한다. A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 = 4{,}000 - 5P$이다. 여기서 Q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고, P는 A의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이다. 또한 A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은 $MC = 400$이다. A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부가격제도는? (단, 단위는 원이다)

① 고정회비: 400,000원,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400원

② 고정회비: 400,000원,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600원

③ 고정회비: 100,000원,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600원

④ 고정회비: 100,000원, 서비스 한 단위 당 가격: 4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부가격제에서 서비스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고, 그때의 소비자잉여를 고정회비로 받는 원리를 묻는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 = 4{,}000 - 5P$이고 한계비용은 $MC = 400$원이다. 이부가격제의 총이윤은 고정회비와 서비스 판매이윤의 합이다. 회원이 가입하려면 고정회비가 해당 단위당 가격에서의 소비자잉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역수요함수는 $P = 800 - \frac{Q}{5}$이다.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량을 만들기 위해 단위당 가격은 $P = MC$로 정하고, 고정회비는 그 가격에서의 소비자잉여로 정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와 가격선 위의 삼각형 넓이이므로 CS=(1)/(2)× 수량× 최고지불의사가격과 가격의 차이이다.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이면 서비스 판매마진은 생기지만 이용량이 줄어 총잉여가 감소하므로, 고정회비로 잉여를 회수할 수 있는 이부가격제에서는 $P = MC$가 이윤극대화 가격이 된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가격은 $P = MC = 400$원이다.
2. 이때 수요량은 $Q = 4{,}000 - 5 \times 400 = 2{,}000$이다.
3. 수요가 0이 되는 최고지불의사가격은 8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2{,}000 \times (800 - 400) = 400{,}000$원이다.
4. 이 소비자잉여 전부를 고정회비로 받으면 회원은 가입 여부에 무차별하고, 기업은 400,000원을 회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고정회비 400,000원, 단위당 가격 400원은 $P = MC$를 충족하고 소비자잉여 400,000원을 고정회비로 회수한다.
② X. 단위당 가격 600원이 틀린 표현이다. $P = 600$원에서는 $Q = 1{,}000$이고 소비자잉여는 100,000원뿐이어서 고정회비 400,000원을 내면 회원이 가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가격 400원, 고정회비 400,000원이다.
③ X. 단위당 가격 600원과 고정회비 100,000원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판매이윤 200,000원과 고정회비를 합쳐 300,000원만 얻는다.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 이용량을 줄인 것이 틀린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단위당 가격 400원, 고정회비 400,000원이다.
④ X. 단위당 가격 400원은 맞지만 고정회비 100,000원이 틀린 표현이다. 이 가격에서 소비자잉여는 400,000원이므로 100,000원만 받으면 300,000원을 남긴다. 올바르게는 고정회비 4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처럼 단위당 가격을 600원으로 올려 판매마진을 얻는 방식은 일반 독점가격의 발상이다.
이부가격제에서는 고정회비로 소비자잉여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단위당 가격을 올려 거래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질적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이부가격제 문제에서는 먼저 $P = MC$로 단위당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수요량을 구한 뒤 소비자잉여를 계산하여 고정회비와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이부가격제는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 고정회비는 소비자잉여이다.

NoteBase

문 6. GDP 디플레이터(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데 불리한 지표이다.

②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다는 점에서 명목 GDP 1단위에 대한 실질 GDP의 값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효과는 제거하고 기준가격에 대한 경상가격의 변화분만 나타내는 지표이다.

④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 장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의 산식과 측정 대상이 CPI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물가지수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CPI는 가계가 소비하는 대표 소비재·서비스 바구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물량 변화 효과를 제거하여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GDP와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의 차이에서 가격 변동을 파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품목에 한정된 CPI보다 국내 최종생산물 전반의 가격 변동을 포괄한다. 틀린 표현은 '불리한 지표'이며, 올바르게는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데 더 포괄적인 지표이다.
② X: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지수이다. 틀린 표현은 '명목 GDP 1단위에 대한 실질 GDP'이며, 올바르게는 실질 GDP 1단위에 대한 명목 GDP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③ O: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이용하므로 생산량 변화 효과는 제거되고, 기준가격에 대한 경상가격의 변화, 즉 가격수준의 변동이 나타난다.
④ X: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은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수준 상승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가격수준 상승에 기인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CPI보다 포괄 범위가 넓다는 점을 반대로 말했고, ②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분자를 뒤바꾸었다. ④는 GDP라는 생산지표의 증가와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의 상승을 혼동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먼저 '명목 GDP ÷ 실질 GDP'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생산량이 아니라 가격수준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소비자 바구니만 보는 CPI보다 측정 범위가 넓은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 GDP는 가격×생산량, 실질 GDP는 기준가격×생산량이다. 명목 GDP ÷ 실질 GDP는 생산량을 지우고 가격 변동을 남긴다.

NoteBase

문 7. A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3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4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한편 B국가의 노동 1단위는 옥수수 1kg을 생산할 수도 있고, 모자 2개를 생산할 수도 있다. A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3만 단위이고, B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5만 단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③ A국의 옥수수 1kg 생산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다.

④ 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별하고, 한 재화 1단위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인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노동 1단위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이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서 나타난다.
A국은 노동 1단위로 옥수수 3kg, 모자 4개를 생산하고 B국은 옥수수 1kg, 모자 2개를 생산하므로 A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A국에서 옥수수 1kg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고, 모자 1개의 기회비용은 옥수수 3/4kg이다. B국에서 옥수수 1kg의 기회비용은 모자 2개이고, 모자 1개의 기회비용은 옥수수 1/2kg이다. 따라서 A국은 옥수수, B국은 모자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A국은 노동 1단위로 옥수수 3kg을 생산하여 B국의 1kg보다 많이 생산한다. 따라서 A국은 옥수수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② O. A국은 노동 1단위로 모자 4개를 생산하여 B국의 2개보다 많이 생산한다. 따라서 A국은 모자 생산에도 절대우위를 가진다.
③ O. A국에서 옥수수 3kg을 생산하려면 모자 4개 생산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옥수수 1kg의 기회비용은 모자 4/3개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A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이다. 모자 1개의 기회비용은 A국이 옥수수 3/4kg, B국이 옥수수 1/2kg이므로 B국이 더 낮다. 올바르게는 ‘B국은 모자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A국이 두 재화 모두 더 많이 생산하므로 모자에도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우위는 생산량의 크기로,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의 낮고 높음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나라의 재화별 생산량을 비교해 절대우위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한 재화의 생산량을 다른 재화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기회비용을 구하고, 그 값이 더 작은 나라를 비교우위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많이 생산, 비교우위는 더 적게 포기한다.

NoteBase

문 8.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의 비중이 클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② 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③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④ 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가연동제, 자연실업률, 기대물가상승률의 변화가 단기 및 장기 필립스곡선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은 주어진 기대물가상승률 아래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일시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 곡선이다.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므로 장기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없다.
물가연동제는 실제 물가변동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연동계약 비중이 높을수록 예상 밖의 물가상승이 실질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기대물가상승률의 변화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아래로 이동시키고, 자연실업률의 변화는 장기 필립스곡선의 수직 위치를 좌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고용계약의 비중이 커지면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도 더 빨리 조정된다. 따라서 같은 실업률 하락을 위해 더 큰 물가상승이 필요해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더 가파른'이다.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므로 단기 필립스곡선보다 가파르다. 올바르게는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라고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왼쪽으로 이동한다'이다.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더 높은 실업률 위치로, 즉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왼쪽으로 이동한다'이다. 기대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각 실업률에서 실제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는 점을 놓치게 하고, ③은 자연실업률 상승을 실업률 감소처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④는 기대물가상승률의 변화가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아래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왼쪽 이동'으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인지 확인한다. 기대물가상승률 변화는 단기곡선의 위아래 이동, 자연실업률 변화는 장기곡선의 좌우 이동으로 구분한다. 물가연동제가 강할수록 물가상승의 실물효과가 작아져 단기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동계약↑ → 단기 필립스곡선 가파름, 기대인플레이션↑ → 단기곡선 위로, 자연실업률↑ → 장기곡선 오른쪽이다.

NoteBase

문 9. 세계는 A국, B국, C국의 세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B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C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A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B국과 C국의 A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을 때, B국과 C국의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국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할 것이다.

② C국의 환율(C국 화폐로 표시한 A국 화폐 1단위의 가치)은 상승할 것이다.

③ B국과 C국 모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을 경험한다.

④ C국이 B국보다 A국 경제불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외수요 감소 충격이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외환시장·자본이동에 미치는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정환율제는 중앙은행이 정해진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사고팔아야 하는 제도이다. 변동환율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 변화가 환율 변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이다.
B국과 C국의 A국 수출이 감소하면 두 나라의 소득과 이자율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고,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유출되는 압력을 받는다. B국은 고정환율을 지키기 위해 외환을 매각하고, C국은 C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조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B국의 A국 수출 감소와 자본유출은 B국 화폐의 가치 하락 압력을 만든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B국 중앙은행은 시장에 외환을 공급하므로 외환을 매각한다.

② O. C국은 변동환율제이므로 A국의 C국 상품 수요 감소로 C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C국 화폐는 평가절하되고, C국 화폐로 표시한 A국 화폐 1단위의 가격은 상승한다.

③ O. A국 수출 감소는 B국과 C국의 총수요와 소득을 줄여 이자율 하락 압력을 만든다.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으므로 낮아진 이자율은 자본유출 압력으로 이어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C국이 B국보다 더 크게’이다. 변동환율제의 C국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출 감소 충격의 일부를 환율 조정으로 흡수한다. 반면 고정환율제의 B국은 환율 조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A국 경기불황의 영향을 B국이 더 크게 받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변동환율이 충격을 증폭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수출수요가 줄었을 때 변동환율국의 통화가치 하락은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 감소를 완화하는 자동조정 장치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출 감소가 소득·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을 만든다는 흐름을 확인한다. 이어 고정환율국은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변동환율국은 통화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충격을 조정한다는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환율은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하고, 변동환율은 환율 하락으로 충격을 흡수한다.

NoteBase

문 10. 자유무역 시 A국의 국내 생산자는 80달러의 수입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옷을 국내시장에서 한 벌 당 1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만약 A국이 수입 옷 한 벌 당 10%의 명목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A국의 국내시장 옷 가격은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승하여 A국 국내 생산자의 옷 한 벌 당 부가가치는 20달러에서 30달러로 증가한다. 이때 A국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 변화율로 바라본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① 40 %

② 50 %

③ 60 %

④ 70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세 부과 전후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 변화를 이용하여 실효보호관세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자유무역 시 옷 가격은 100달러이고 수입 원료비는 80달러이므로 국내 생산자의 부가가치는 20달러이다. 옷에 10%의 명목관세가 부과된 뒤 옷 가격은 110달러가 되며, 원료비는 80달러로 그대로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 뒤 부가가치는 30달러이다.

사용할 공식

실효보호관세율은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다.
실효보호관세율=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자유무역 시 부가가치자유무역 시 부가가치×100
완성재인 옷에만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생산자가 받는 옷 가격이 상승하므로, 산출가격에서 원료비를 뺀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는 100달러 - 80달러 = 20달러이다.
2.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는 110달러 - 80달러 = 30달러이다.
3. 실효보호관세율은 $\frac{30-20}{20} \times 100 = 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40%는 부가가치 증가액 10달러를 잘못된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인 '40%'는 '50%'로 고쳐야 한다.
② O. 부가가치가 20달러에서 30달러로 10달러 증가했으므로,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 20달러 대비 증가율은 50%이다.
③ X. 60%는 실효보호관세율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60%'는 '50%'로 고쳐야 한다.
④ X. 70%는 실효보호관세율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70%'는 '50%'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명목관세율 10%를 그대로 답으로 보거나, 부가가치 증가액 10달러를 옷 가격 100달러에 나누는 실수가 흔하다. 실효보호관세율의 분모는 완성재 가격이 아니라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 20달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성재 가격에서 투입요소 가격을 빼 각각의 부가가치를 먼저 구한 뒤, 관세 후 부가가치-관세 전 부가가치관세 전 부가가치×100으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실효보호관세율은 '완성재 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NoteBase

문 11.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직접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③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

④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역진적이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세의무자·실질적 부담자, 누진성, 조세저항, 소득재분배 효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세는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대체로 같아 조세전가가 어렵고,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 적용이 비교적 쉽다.
간접세는 생산자·판매자 등이 납부한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어 조세전가가 일어난다.
직접세는 부담이 눈에 잘 드러나 조세저항이 크고, 간접세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커지기 쉬워 역진적 성격을 띤다.

선지별 해설

① X. 간접세는 상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으므로 조세전가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조세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다.
②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③ O.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여 세 부담을 뚜렷하게 인식하므로 간접세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④ O.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이 있어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커지기 쉽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역진적이며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간접세'의 핵심인 조세전가 가능성을 직접세의 성질처럼 바꾸어 놓았다. 조세를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가 두 세목을 가르는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금의 납부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으면 직접세, 가격을 통해 부담을 넘길 수 있으면 간접세로 판단한다. 이어서 직접세는 누진성·조세저항, 간접세는 조세전가·역진성을 연결해 선지를 점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직접세는 직접 부담하여 누진·저항, 간접세는 가격에 전가되어 역진성이 나타난다.

NoteBase

문 12. 시중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상승하는 경우, 매년 300만 원씩 영원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의 현재가치의 변화는?

① 30만 원 감소

② 60만 원 감소

③ 300만 원 감소

④ 1,000만 원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년 같은 금액을 영구히 지급하는 영구채의 현재가치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년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시장금리는 연 5%에서 연 6%로 상승한다.
영구채이므로 원금 상환시점 없이 매년 동일한 지급액이 계속된다.

사용할 공식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P = \frac{C}{r}$이다. 여기서 C는 매년 지급액, r은 시장금리이다. 매년 같은 금액이 영구히 지급되므로 일반 채권의 만기별 할인 대신 이 영구연금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금리 5%일 때 현재가치는 $P_5 = \frac{3,000,000}{0.05} = 60,000,000$원이므로 6,000만 원이다.
금리 6%일 때 현재가치는 $P_6 = \frac{3,000,000}{0.06} = 50,000,000$원이므로 5,000만 원이다.
변화액은 $P_6 - P_5 = 50,000,000 - 60,000,000 = -10,000,000$원이다. 따라서 현재가치는 1,000만 원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현재가치는 3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감소한다. 틀린 표현 '30만 원 감소' → 올바르게는 '1,000만 원 감소'이다.
② X: 현재가치는 6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감소한다. 틀린 표현 '60만 원 감소' → 올바르게는 '1,000만 원 감소'이다.
③ X: 현재가치는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감소한다. 틀린 표현 '300만 원 감소' → 올바르게는 '1,000만 원 감소'이다.
④ O: 금리 상승 전 현재가치 6,000만 원에서 상승 후 5,000만 원이 되어 1,000만 원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지급액 300만 원의 일부를 빼는 것이 함정이다. 영구채의 가격은 금리 자체가 분모에 들어가는 C/r로 계산하므로, 금리 변화 전후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해 비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구채·영구연금이 나오면 먼저 $P = C/r$를 적용한다. 금리 변화 문제에서는 변화 전 가격과 변화 후 가격을 각각 계산한 뒤 후자에서 전자를 빼서 감소·증가 방향과 금액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영구채 가격은 $P = C/r$이다. 지급액이 같으면 금리 상승은 현재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3. 매년 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매년 100kg의 쌀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현금 대신 매년 200kg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의 시장가격은 kg당 2,000원이어서 지원되는 쌀의 가치는 40만 원이다. 쌀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가구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① 이 가구는 새로 도입된 현물급여보다 기존의 현금급여를 선호할 것이다.

② 현물급여를 받은 후 이 가구의 예산집합 면적은 현금급여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③ 이 가구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쌀 소비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④ 만약 쌀을 kg당 1,5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면, 이 가구는 그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금액의 현금급여와 재판매가 금지된 현물급여가 가구의 예산집합과 선택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현금급여는 연 400,000원이고, 쌀 가격은 kg당 2,000원이므로 현물로 지원되는 200kg의 시장가치는 200 kg × 2,000원/kg=400,000원이다.
현금급여를 받던 때 이 가구는 쌀을 100kg만 소비했다.
새 제도에서는 200kg의 쌀을 받지만 재판매가 금지되어, 남는 쌀의 가치를 다른 재화 소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핵심 개념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쌀과 다른 재화의 소비를 자유롭게 조합하게 하는 반면, 현물급여는 특정 재화의 소비를 강제하거나 그 재화에 지출을 묶어 둔다. 현물지원량이 현금급여 아래에서 선택하던 쌀 소비량보다 크고 재판매도 못 하면, 현물급여의 예산집합은 현금급여의 예산집합과 같을 수 없다.

적용 기준

먼저 현물의 시장가치를 현금급여와 비교한 뒤, 현금급여 때의 실제 쌀 소비량과 현물지원량을 비교한다. 이 문제에서는 현금급여 때 100kg만 선택했는데 200kg을 현물로 받으므로, 초과 100kg을 다른 재화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전환이 불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금급여 때 이 가구는 100kg의 쌀만 선택했다. 200kg의 현물은 이 가구가 원래 선택한 양보다 많고, 남는 쌀을 팔아 다른 재화를 살 수도 없다. 따라서 소비 조합의 선택폭이 더 넓은 기존 현금급여를 선호한다.

② X. 현금급여에서는 400,000원을 쌀과 다른 재화에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에서는 200kg의 쌀이 주어지고 재판매가 금지되므로 이를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꿀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차이가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재판매가 금지된 현물급여의 예산집합은 현금급여의 경우와 다르다'이다.

③ O. 현금급여 아래에서의 쌀 소비량은 100kg이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200kg의 쌀이 지원되고 재판매도 불가능하다. 지원 쌀을 처분하지 않는 한 쌀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④ O. kg당 1,5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다면, 가구는 지원 쌀의 일부를 팔아 현금을 얻고 다른 재화 소비에 쓸 유인이 생긴다. 이 경우 현물급여의 경직성은 일부 완화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현물의 시장가치가 400,000원으로 현금급여와 같다'는 사실만 보고 예산집합도 같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가치가 같아도 재판매 금지 때문에 쌀을 다른 재화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선택 가능한 소비 조합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비교할 때에는 금액만 같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현물의 수량이 기존 선택량보다 큰지, 남는 현물을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선택을 제한한다.

암기 포인트

현물의 가치가 현금과 같아도 재판매가 막히면 예산집합은 같지 않다.

NoteBase

문 14. A시의 시내버스시스템이 적자상태에 있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A시의 대중교통과 직원은 버스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반해, 시민단체는 버스요금 인하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한다.

②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한다.

③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직원의 경우가 더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요금 변화가 총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탄력적 수요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수요이며,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가격비탄력적 수요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수요이며,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버스요금 인상을 주장한 직원은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요금 인하를 주장한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본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직원이 요금 인상으로 수입 증대를 기대했다면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가 요금 인하로 수입 증대를 기대했다면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본 것이다. 틀린 표현인 '직원은 가격탄력적, 시민단체는 가격비탄력적' → '직원은 가격비탄력적, 시민단체는 가격탄력적'이다.

② O. 가격비탄력적 수요에서는 요금 인상이 총수입을 늘리고, 가격탄력적 수요에서는 요금 인하가 총수입을 늘린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은 각각 이와 같은 수요탄력성 판단을 전제한다.

③ X. 양측이 모두 가격비탄력적 수요라고 보았다면 시민단체도 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틀린 표현인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 가격비탄력적, 시민단체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 → '직원은 가격비탄력적이고 시민단체는 가격탄력적'이다.

④ X. 양측이 모두 가격탄력적 수요라고 보았다면 직원도 요금 인하를 주장해야 한다. 틀린 표현인 '직원과 시민단체 모두 … 가격탄력적, 직원의 경우가 더 탄력적' → '직원은 가격비탄력적이고 시민단체는 가격탄력적'이다.

오답 포인트

'요금 인상'과 '요금 인하' 자체만 보고 탄력성을 반대로 연결하기 쉽다. 총수입을 늘리려는 방향을 함께 보면, 인상 주장에는 비탄력적 수요, 인하 주장에는 탄력적 수요가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 후 총수입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먼저 본다.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수요는 가격비탄력적이고,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수요는 가격탄력적이다.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이면 가격↑·총수입↑, 탄력적이면 가격↓·총수입↑이다.

NoteBase

문 15.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수량방정식은 $M \cdot V = P \cdot Y$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① 화폐유통속도(V)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M)을 증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P \cdot Y$)는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③ 산출량(Y)은 통화량(M)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④ 중앙은행이 통화량(M)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량설에서 화폐유통속도 V, 통화량 M, 산출량 Y의 장기적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수량방정식은 $M \cdot V = P \cdot Y$로, 화폐로 지출된 총액과 산출물의 명목가치가 같음을 나타낸다.
화폐수량설은 장기적으로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는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 같은 실물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M이 변하면 장기적으로 주로 P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며, M 감소는 물가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다. 화폐수량설에서는 장기적으로 화폐유통속도 V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전제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이다. V와 Y가 주어진 장기에는 M이 증가하면 $P \cdot Y$도 증가해야 하므로 명목가치는 통화량과 독립적이지 않다.
③ O. 산출량 Y는 통화량이 아니라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 같은 실물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④ X.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이다. 통화량 M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총지출과 물가에 하락 압력이 생기므로, 올바르게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항등식 $M \cdot V = P \cdot Y$ 자체와 장기 가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④는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의 효과를 반대로 바꾸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량설 문제에서는 먼저 장기적으로 V는 안정적이고 Y는 실물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전제를 확인한다.
그다음 M의 증감과 P의 증감이 같은 방향인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장기 화폐수량설: V는 안정, Y는 실물요인, M 증가는 P 상승이다.

NoteBase

문 16.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10,000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철수 집의 자산가치는 2,500이다. 철수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이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2이다. 위험을 기피하는 철수의 효용함수는 $U(X) = X^{1/2}$이다. 화재의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은? (단, X는 자산가치이다)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위험회피자의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자산가치에서 확실성등가를 뺀 금액으로 구한다. 이 문제는 기대효용을 이용해 확실성등가를 먼저 구하는 계산형 문제이다.

조건 정리

화재가 없을 때 자산가치는 10,000이고 확률은 0.8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자산가치는 2,500이고 확률은 0.2이다. 효용함수는 $U(X) = X^{1/2}$이다.

사용할 공식

기대효용은 $E[U(X)] = 0.8\sqrt{10,000} + 0.2\sqrt{2,500}$으로 구한다. 확실성등가 CE는 $U(CE) = E[U(X)]$를 만족하는 확실한 자산가치이다. 위험 프리미엄은 $RP = E[X] - CE$이다. 효용함수가 오목한 위험회피자이므로 기대자산가치와 확실성등가의 차이가 위험 프리미엄이 된다.

계산 과정

1. 기대효용은 $0.8 \times 100 + 0.2 \times 50 = 90$이다.
2. $\sqrt{CE} = 90$이므로 확실성등가는 $CE = 90^2 = 8,100$이다.
3. 기대자산가치는 $E[X] = 0.8 \times 10,000 + 0.2 \times 2,500 = 8,500$이다.
4.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은 $RP = 8,500 - 8,100 = 400$이다.

선지 판단

① X: 위험 프리미엄은 200이 아니다. 계산 결과 $RP = 400$이므로 '2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② X: 위험 프리미엄은 300이 아니다. 계산 결과 $RP = 400$이므로 '3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③ O: 기대자산가치 8,500에서 확실성등가 8,100을 빼면 위험 프리미엄은 400이다.
④ X: 위험 프리미엄은 500이 아니다. 계산 결과 $RP = 400$이므로 '5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대자산가치 8,500을 곧바로 위험 프리미엄으로 보거나, 기대효용 90을 자산가치로 취급하면 오답이 된다. 효용함수의 역함수를 적용하여 확실성등가 8,100을 구한 뒤 두 자산가치를 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 프리미엄 문제에서는 먼저 상태별 효용의 기대값을 구하고, $U(CE) = E[U(X)]$에서 확실성등가를 구한다. 그다음 $E[X] - CE$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회피자: RP=기대자산가치-확실성등가, 그리고 $RP > 0$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표와 같은 조건 하에서 A국과 B국은 옷과 쌀 2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노동만이 두 상품의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불변인 리카르도 모형을 고려하자. 이제 자유무역으로 국제시장에서 상대가격(P_옷/P_쌀)은 1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역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wage*는 명목임금, *P*는 가격, *MP*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A국		B국	
$wage = 12$		$wage^* = 6$	
$MP_{옷} = 2$	$MP_{쌀} =$	$MP^*_{옷} =$	$MP^*_{쌀} = 1$
$P_{옷} =$	$P_{쌀} = 4$	$P^*_{옷} = 3$	$P^*_{쌀} =$

① A국은 쌀을 수출할 것이다.

② 무역 이전에, 옷 생산의 경우 B국의 MP_옷^*이 A국의 MP_옷보다 높다.

③ 무역 이전에, 쌀 생산의 경우 B국의 MP_쌀^*이 A국의 MP_쌀보다 높다.

④ 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리카도 모형에서 무역 전 (P \times MP = wage)를 이용해 각국의 가격과 노동 한계생산물을 구하고, 무역 전 상대가격과 국제 상대가격을 비교하여 수출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은 임금 12, 옷의 한계생산물 2, 쌀 가격 4이다. B국은 임금 6, 쌀의 한계생산물 1, 옷 가격 3이다. 자유무역 뒤 국제 상대가격은 P_옷/P_쌀=1이다.

사용할 공식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하는 무역 전 균형에서는 $wage = P_i \times MP_i$이다. 노동 1단위의 생산가치가 어느 재화에서나 같아야 노동이 두 재화 생산에 배분될 수 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국에서 MP_쌀=12/4=3, P_옷=12/2=6이다. 따라서 A국의 무역 전 상대가격은 P_옷/P_쌀=6/4=1.5이다.
B국에서 MP^*_옷=6/3=2, P^*_쌀=6/1=6이다. 따라서 B국의 무역 전 상대가격은 P^*_옷/P^*_쌀=3/6=0.5이다.
국제 상대가격 1은 A국의 1.5보다 낮고 B국의 0.5보다 높다. 그러므로 A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쌀을 수출하고 옷을 수입하며, B국은 옷을 수출한다.

선지 판단

① O. A국의 무역 전 옷의 상대가격은 1.5이고 국제 상대가격은 1이므로, A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쌀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쌀을 수출한다.
② X. MP^*_옷=2, MP_옷=2이므로 B국의 옷 한계생산물은 더 높지 않고 A국과 같다. 틀린 표현인 '높다'는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MP^*_쌀=1, MP_쌀=3이므로 B국의 쌀 한계생산물은 A국보다 낮다. 틀린 표현인 '높다'는 '낮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두 나라의 무역 전 상대가격이 A국 1.5, B국 0.5로 서로 다르고 국제 상대가격 1이 그 사이에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인 '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은 '무역이 발생할 것'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한계생산물의 크기를 국가별로 직접 비교하게 하는 함정이다. 옷은 두 나라 모두 2이고, 쌀은 A국 3, B국 1이다. 또 ④처럼 국제 상대가격이 두 나라의 무역 전 상대가격 사이에 있으면 무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나라에서 $P_i \times MP_i = wage$로 표의 빈칸을 채운다. 다음으로 P_옷/P_쌀의 무역 전 상대가격을 구하고 국제 상대가격과 비교한다. 국제 상대가격보다 무역 전 상대가격이 높은 나라는 옷을 수입하고 쌀을 수출한다.

암기 포인트

무역 전 상대가격이 높은 재화는 비교열위 재화이다. A국은 옷의 상대가격이 1.5로 높으므로 쌀을 수출한다.

NoteBase

문 18.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한다.

② 장기금리를 높인다.

③ 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한다.

④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에 이른 뒤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 사용하는 확장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로금리 하한은 정책금리를 더 낮추어 경기부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 등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금리와 신용여건에 영향을 주는 양적완화를 사용한다. 긴축정책은 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한다'이다. 이 문항의 제로금리 하한 상황에서는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 대신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적절하다.
② X. 장기금리를 높이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장기금리를 높인다' → 올바르게는 장기금리의 하락을 유도한다.
③ X.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대금을 흡수하여 통화량과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한다' → 올바르게는 국공채를 매입한다.
④ O.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과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소비·투자를 뒷받침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국공채 매각과 국공채 매입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면 대금이 시중에 풀리고, 팔면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유동성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 침체에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선택지를 고른다. 정책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이면 금리 인하 대신 국공채 매입·유동성 공급처럼 시중 자금을 늘리는 비전통적 수단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불황에는 돈을 푼다: 국공채 매입·유동성 공급은 완화, 금리 인상·국공채 매각은 긴축이다.

NoteBase

문 19. 세계시장에서 대형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은 A국의 X사와 B국의 Y사만 있으며, 이 두 기업은 대형항공기를 생산할지 혹은 생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 기업이 대형항공기를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윤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자. 즉, 두 기업 모두 생산을 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지만, 한 기업만 생산을 하게 되면 독점이윤을 얻게 된다. 이제 B국은 Y사가 대형항공기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도록 Y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때 B국이 Y사에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보조금은? (단, X사가 있는 A국은 별다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단위 : 백만 달러)

		Y사	
		생산	생산 않음
X사	생산	(−1, −2)	(24, 0)
	생산 않음	(0, 20)	(0, 0)

※ 주 : (,)안의 숫자는 (X사의 보수, Y사의 보수)를 말한다.

① 1백만 달러 초과

② 20백만 달러 초과

③ 2백만 달러 초과

④ 24백만 달러 초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조금이 Y사의 생산 유인을 바꾸어 Y사가 유일한 생산자가 되게 하는 최소 조건을 구하는 전략게임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보수의 단위는 백만 달러이다. X사가 생산할 때 Y사가 생산하면 Y사의 보수는 -2, 생산하지 않으면 0이다. Y사가 생산하면 X사는 생산의 보수 -1보다 생산하지 않을 때의 보수 0을 더 선호한다.

사용할 공식

Y사가 X사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도록 하려면 보조금을 s라 할 때 $s - 2 > 0$이어야 한다. Y사가 생산을 선택한 뒤에는 X사가 생산하지 않으므로 Y사가 유일한 생산자가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X사가 생산할 때 Y사의 생산 보수는 보조금 전 -2이다.
2. 보조금 s를 받으면 Y사의 생산 보수는 $s-2$가 되고, 생산하지 않을 때의 보수는 0이다.
3. Y사가 생산을 확실히 선택하려면 $s-2>0$, 즉 $s>2$가 필요하다. s=2이면 Y사가 생산과 비생산 사이에 무차별하므로 Y사의 유일 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선지 판단

① X — 1백만 달러를 조금 넘는 보조금으로는 Y사의 보수가 여전히 0보다 작을 수 있다. '1백만 달러 초과' → 올바르게는 '2백만 달러 초과'이다.
② X — 20백만 달러 초과는 Y사의 생산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만 최소 보조금이 아니다. '20백만 달러 초과' → 올바르게는 '2백만 달러 초과'이다.
③ O — 보조금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X사가 생산해도 Y사의 생산 보수가 0보다 커진다. Y사가 생산하면 X사는 생산하지 않으므로 Y사가 유일한 생산자가 된다.
④ X — 24백만 달러 초과도 충분하지만 최소 수준보다 과도하다. '24백만 달러 초과' → 올바르게는 '2백만 달러 초과'이다.

오답 포인트

Y사가 X사의 생산에 맞서 생산할 때의 손실 2만 보전하면 된다고 보고 2백만 달러를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보조금이 정확히 2이면 Y사의 생산과 비생산 보수가 모두 0이어서 생산을 확실히 유도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전략에서는 상대 기업이 원래 생산하지 않는 상황의 보수와 보조금 후 생산 보수를 먼저 비교한다. 유일한 생산자를 반드시 만들려면 생산 보수가 비생산 보수보다 엄격히 커야 한다.

암기 포인트

손실 2를 보전하는 동률은 부족하고, 유인을 만들려면 2를 초과해야 한다.

NoteBase

문 2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난다.

②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 상승을 가져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물가는 상승한다.

③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④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원/$)이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자산가격·소비·투자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채권수익률을 낮추어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의 현재가치를 높이고, 차입비용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다. 또한 국내 금리 하락은 자본유출 압력을 높여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가치 하락을 뜻하며, 달러표시 부채의 원화환산액은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주식·부동산 수요가 늘고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② O. 금리 인하는 국내외 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품의 외화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 개선 요인이 되고, 수입물가를 올려 국내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③ O.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자금 이용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높여 차입비용을 낮춘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감소한다'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같은 달러표시 해외부채의 원화평가액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원화 강세로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당 원화가격 상승, 즉 원화 약세이므로 달러표시 부채의 원화 부담은 커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서는 '금리 하락 → 차입비용 하락·자산가격 상승 → 소비·투자 증가'의 흐름을 먼저 판단한다. 환율은 원/달러 표시를 확인한 뒤, 환율 상승이면 원화 약세·수입물가 상승·달러부채 원화환산액 증가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 = 원화 약세 = 달러부채의 원화 부담 증가이다.

NoteBase